

## 우리나라 부부갈등과 부부관계 유형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최선희 · 전명희 \*

이 연구는 우리나라 부부의 갈등영역과 부부관계 유형에 따른 부부관계에서의 불안정성 정도와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국의 기혼 남녀 1,217명을 대상으로 전국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부부들이 가장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영역으로는 습관의 차이, 가사일 분담, 여가 혹은 취미활동 등으로 정서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것들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의 유형을 부부간의 만족도와 불안정성을 두 축으로 하여 네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부부관계가 불만족스럽고 불안정한 유형(A)이 8.3%, 반면에 부부관계의 만족도도 높고 안정성도 있는 유형(D)은 68.4%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비교적 안정적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부관계가 만족도와 안정성에서 불일치를 보이는 집단인 불만족/안정의 유형(B)은 전체의 17.1%, 그리고 만족/불안정 유형(C)도 6.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안정되고 만족한 결혼생활을 위해 개입이 요구되는 부부가 30%가 넘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불만족스럽고 불안정한 유형은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볼 때 해체가능성이 매우 커서 이들에 대한 개입이 절실한 실정이다. 한편 이들 부부관계 유형과 부부갈등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전체적인 갈등정도( $p < .000$ )와

\* 최선희 : 한국 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전명희 :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갈등영역들( $p < .05$ )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갈등영역 중 부부관계의 유형에 따라 특히 차이가 많은 영역은 애정/사랑의 문제와 가치관/인생관의 문제 및 역할기대 문제로서 이들에 대한 갈등관리가 만족하고 안정된 결혼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1.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 IMF 등 사회적인 압력이 높아지면서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가족의 해체가 그 현상 중의 하나이다. 결혼의 관계는 결혼생활의 유지 자체가 최대의 덕목이었던 전통적 관점으로부터 점차 변화되어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한 가족의 불안정성이 가장 높은 상태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보면 1987년 혼인건수 376,698쌍 중 이혼건수는 42,375쌍으로 이혼에 대한 이혼율이 11.2%였는데, 1997년에는 한해 혼인건수 310,536쌍 중 이혼건수는 74,672건이 신고되어 24%를 나타내며, 추정건수로는 93,171건으로 10년 만에 이혼정도가 2배 이상 상승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단순 비교로서 97년 한해 동안의 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8.1명인데 반해, 이혼율은 2.0명으로서 네 명이 결혼하여 1명이 이혼을 하는 결과로 치닫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혼 연령은 1987년에는 남성의 평균 이혼 연령이 36.2세, 여성은 32.1세였는데, 1997년의 이혼당시연령은 39.3세, 35.7세로서 점차적으로 이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이혼 당시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신혼 초기뿐 아니라 결혼해서 살다가도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이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서 한국 부부의 결혼의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있는 추세라 볼 수 있다.

전통적 결혼관과는 달리 현대에 와서는 결혼관계가 부부간의 애정과 이해를 핵심 요소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들보다 부부간의 관계의 요인이 더 많이 결혼관계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부부관계의 안정성(*stability*)이란 결혼생활의 지속성에 대한 개념으로 안정된 부부관계란 배우자의 자연적인 죽음으로 인해서만 해체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Lewis & Spanier, 1979). 반대로, 불안정한 부부관계란 해체가 용이한 관계로 특히 부부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 모두의 의도에 의해서

해체가 가능한 관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혼율이 높은 사회란 결혼이 불안정한 사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이라는 극단적 결과로 나타나지 않고 부부관계가 유지된다 하여도, 그 결혼생활의 갈등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 부부들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부부들은 결혼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결국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결혼으로 인한 삶의 질은 매우 낮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입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는 시점에 있다. 가족이 해체되지 않고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 목적을 위해 사회복지계에서도 일찍부터 가족생활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으며, 최근에는 가족치료의 발전과 함께 한국 가족의 실제적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한 논의들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들은 임상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여 문제가 있는 가족들의 유형이나 역기능을 살펴보는 것이 대부분으로 일반 가족의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들은 부족한 편이었고, 특히 한국 가족의 부부갈등 특성과 관련하여 조망해 보는 것은 부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부부생활의 만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의 이슈가 되고 있는 가족해체에 영향을 주는 우리나라 부부관계의 불안정성 정도를 살펴보고, 특히 어떠한 부부간의 갈등영역이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지 밝혀보고자 하였다.

## 2. 선행연구

### 1)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가족의 연구 분야는 다양한 학문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기 학문적 특성에 따라 가족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부분도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학자들은 초기에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빈민가족의 생활조건을 개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가족연구에 접근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모든 가족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삶의 질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관심을 두면서 정책적, 임상적 접근을 하고 있다(조흥식 외, 1998). 가족의 기능과 역할구조 또는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들은 그동안 구조기능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데, 가족관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족갈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이해가 부족하였다. 김양희(1993)는 현대사회에서의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유형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는 갈등이론적 접근이 좀더 유용하며, 갈등이론을 가족 연구에 적용시킨 Sprey나 Collins의 이론으로부터 가족의 갈등을 연구하는 유용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Sprey(1979)는 가족연구에서 갈등이론으로 접근할 경우 가족 내에서의 일어나는 갈등과 충돌을 설명하고, 가족의 안정·불안정이 어떻게 유발되는지, 어떤 조건하에서 개인간의 유대가 균형이 가능한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부부갈등이 무조건 해소되어야 하는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관리가 되어, 갈등을 잘 조절하면서 결혼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더 중요한 논제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가족갈등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갈등의 원인에 관한 것들이고 부부갈등뿐 아니라 고부갈등에 관한 것도 많이 있다. 이 중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들은 1960년대 말 박상옥(1968)의 연구에서 시작하여 20여편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부부갈등에 관한 정의로는, 부부 상호관계에서 부족한 자원이나 상충되는 목표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김갑숙 외, 1991), 또는 두개의 양립할 수 없는 가치, 목표, 욕구의 충돌 상태 및 기대의 차이로 인해 일어나는 불일치라고 설명하고 있다(이미영, 박혜인, 1995). 즉 부부간의 갈등이란 부부가 가정생활 중에 배우자와의 사이에 겪는 긴장 및 갈등인데, 그 갈등의 영역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부부들은 대체로 성격차이, 의사소통 문제로 갈등을 많이 느끼며, 그밖에 경제문제, 성생활, 친가 및 인척관계, 자녀지도, 배우자의 나쁜 습관, 가사분담 등에 대해 배우자와 갈등을 느낀다고 한다(최규련, 1994). 한편, 하상희(1994)의 연구에서는 커뮤니케이션과 의사소통의 부조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갈등의 문제로 부각되는 주요 영역이라 하였고, 최동숙(1989)은 부부간의 한 명이 역할긴장을 경험한다면 그의 배우자는 상대자가 역할 기대에 대한 순응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역할의 불일치 또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이 갈등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개인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부부갈등의 연구(김갑숙·최외선, 1992)에서는 성격문제, 성문제, 의사소통문제, 자녀문제, 배우자 부정문제, 시가족문제, 경제적 문제 등으로 부부갈등을 분류하였다. 소설 중에 표출된 우리나라 부부의 갈등을 다룬 연구(동환숙 외, 1997)에서는 부부갈등의 주요 원인을 역할갈등, 의사소통 문제, 폭력, 성문제 등으로 분류하였다. 변화순(1994)의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갈등을 17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학부모인 여성 321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성격 및 습

관의 차이(33.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에 대한 역할기대의 차이, 경제적 어려움, 귀가시간의 늦음 등을 주요 갈등영역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부갈등이 가장 심화되어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이혼이라 할 수 있는데, 이혼이란 당사자 및 자녀를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하며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현대의 가족문제 중 중요한 측면이다. 오늘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이혼의 사유도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전춘애 등(1993)의 연구에서는 가족문제보다 부부갈등으로 인하여 결혼 관계가 해체된 경우가 더 많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 2) 부부관계유형 : 결혼의 질과 안정성과의 관계

Spanier 등(1975)은 결혼의 질(*quality*)이란 결혼관계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의한다고 보았고, 결혼생활의 질이 높다는 것은 좀더 만족하고, 갈등이 적으며, 부부간에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가 통합되어 있으며, 잘 적응해 갈 때 성취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결혼생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부부간의 성격적 특성, 태도 및 가치상의 일치, 결혼생활에의 기대, 사회적 성숙도로 구성된 결혼 전의 요인과 역할상의 적응, 만족감, 행복감, 갈등 및 역할갈등, 의사소통, 결합력의 결혼 내적 요인을 나누어 설명한다.

부부관계의 안정성(*stability*)은 결혼의 질과 상당히 연관이 깊은 주제이다. 그러나 실제로 결혼생활이 안정적이라는 것이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가지지는 않는다. Lewis와 Spanier의 연구(1979)에서는 이러한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교환적 이론을 유형화하였다. 즉, 결혼의 질과 결혼생활의 안정성을 두 축으로 하여 전체를 네가지 집단으로 나누었는데, 대체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I 집단 유형은 부부관계의 만족도가 높으면서도 안정적인 것이므로 가장 이상적인 부부관계를 뜻하는 것이며, III 집단 유형은 부부관계의 만족도가 낮고, 결혼생활 자체도 잠재적인 불안정성이 높아서 해체할 가능성이 높은 부부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II와 IV의 유형은 안정성과 결혼의 질이 일치하지 않는 유형으로서 여기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개입되어 이러한 유형을 나타낸다고 한다.

이러한 부부관계유형을 나누어 살펴본 연구로는 이동원(1988)의 연구가 있는데, 도

〈그림 1〉 Spanier & Lewis(1979)의 모형에 의한 부부관계 유형

		Alternative Attractions			
		IV 유형		I 유형	
		결혼의 질 ↓ 결혼의 안정성 ↑		결혼의 질 ↑ 결혼의 안정성 ↑	
Attractions		결혼의 질 ↓ 결혼의 안정성 ↓		결혼의 질 ↑ 결혼의 안정성 ↓	Tensions
		III 유형		II 유형	
		External Pressures			

시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같은 네가지 유형으로 결혼의 질과 불안정성을 조사한 결과, 부부의 질도 낮고, 불안정성도 높은 집단은 36.2%, 부부의 질은 낮으나, 안정적인 집단은 9.8%, 부부의 질은 높으나, 불안정성도 높은 집단은 14.1%, 부부의 질이 높고 안정적인 집단은 39.8%가 나왔다. 1980년대 도시 부부의 특성 중 잠재적인 불안정성을 내포한 가족이 전체의 50.3%였다. 이 연구에서는 안정성과 질이 일치하지 않는 두 집단은 다소 비정상적인 가족 유형으로 보고 그 비율도 높지 않게 나타났는데, 결혼의 질은 낮으나 안정된 집단의 특성으로는 중매혼이 많고, 결혼의 질은 높으나 불안정한 집단에서는 연애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집단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현재의 만족스런 부부관계가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가 되면 쉽게 이혼해 버릴 수 있는 경우로서 결혼생활의 안정성보다는 개인의 만족을 더 추구하는 경우로 이혼율이 높은 서구사회의 부부관계의 특성과 일맥상통하는 유형이라 볼 수 있다(윤양현, 1986).

### 3) 부부갈등과 부부관계유형

Lewis와 Spanier(1979)는 결혼의 질의 하락 → 별거 → 이혼을 과정적인 개념으로 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결혼에 대한 기대, 헌신 및 의무, 인내, 종교적 신념, 외부의 압력 및 사회적 낙인, 이혼에 관한 법률, 현실적인 대안의 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결혼생활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들로는 결혼전

(premarital)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대인관계적 부부관계의 요인으로 나누고 있다. 특히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부부간의 대인관계적인 요인들로는 긍정적 관심(positive regard), 정서적 충족(emotional gratifica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 역할의 적합성(role fit) 그리고 부부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된 부부갈등의 영역에서 의사소통의 부재 또는 부조화와 역할긴장에서 찾아 보는 것과 같은 설명이다.

여기서 주목해볼 만한 부부관계 유형은 부부관계의 만족도와 안정성간에 불일치하는 부부관계 유형이다. 결혼생활의 만족이나 질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들은 배우자간의 갈등이나 만족도가 불일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혼생활에서 어느 한쪽이 불만족한 상태에 있지만 안정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불만족한 배우자 쪽에서 일정한 형태의 적응기제를 동원하여 역기능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 보았다. 윤양현(1986)의 연구에서는 갈등적 상황에서 부부관계의 안정성을 유지시키고 있는 내적인 적응기제로는 성의 도구화, 자녀의 도구화, 연극적 테크닉을 통한 관계유지를 면접조사의 질적 분석을 통해 발견하였다. 즉,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부간 관계의 질은 떨어지는 경우에는 솔직한 대화나 인격적 만족보다는 결혼의 유지를 위하여 성관계나 자녀에게 대리만족을 구하는 유형으로 형식적 안정단계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변화순(1994)의 부부관계의 갈등에 대한 연구에서도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해결하는 방식이 부인의 경우에는 '내가 참는 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데, 그것은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이상 확대시키지 않으려고 참는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것은 잠재된 갈등이 계속 축적되는 결과를 나타낸다. 결과적으로는 갈등이 높으나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부관계는 Cuber나 Harrof(1980)가 나눈 유형 중 '생동력이 없는 관계', 혹은 '소극적인 적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소극적인 적응의 관계는 결혼을 하나의 편리하고 정당한 제도로 받아들이고, 초기부터 상대방에게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아 부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창조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가부장적인 결혼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내는 주로 '참아야 한다'라는 합리화의 기제를 통하여 평등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 그 자체가 유지되는 것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 보장될 것이라는 신념에 강요되게 된다. 이러한 결혼관계는 우리나라에서 주목해보아야 할 관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부부간의 갈등이 심각할 경우에 부부는 해체에 도달할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갈등에 대한 연구들은 간간이 있었지만, 이러한 갈등양상이 부부관계의 유형과 관련지어서 안정성-불안정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부부관계의 갈등에 따른 질과 안정성에 관한 논의는 갈등이 심각해지고 깊어져서 해체로 이어지거나, 그렇지 않다 해도 또다른 문제로, 세대간의 문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부부관계를 단순한 적응보다는 질적 차원에서 논의하여 예방적인 개입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 3.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이 조사는 한국 가족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전국적 차원에서 층화표집(*stratified random sampling*)에 의하여 전국표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조사에서는 1995년 전국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지역을 지역구분을 바탕으로 다단계 표본추출법(*multi-stage sampling*)을 사용하여 지역별 인구비에 일치하도록 표본수를 결정하였으며, 전체 표본수는 1,200명으로 20세 이상 결혼한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조사과정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접원의 가구 방문에 의한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연구기간은 19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조사가 실시되어 최종적으로 1,217사례가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dows를 사용하여, 분석방법으로는 Frequencies, Chi-square, t-Test, Oneway Anova 등을 사용하였다.

#### 3) 측정도구

##### (1) 부부갈등 영역

‘갈등’이란 부부간에 상충되는 욕구나 목표 및 기대의 불일치로 정의되는데, 경제



적, 성, 역할 및 기타 부부 사이에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영역을 총 16가지에 걸쳐 측정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이동원의 연구(1988)에서 사용되었던 것을 재이용하였다. 각 갈등의 영역에 대하여 배우자간의 의견의 일치도에 대하여 '거의 틀림', '틀릴 때가 더 많음', '같은 때가 더 많음', '거의 같음'의 4단위 척도로 질문하였다. 16가지 갈등영역으로는 금전관리(재정문제), 사랑 혹은 애정에 관한 문제, 성생활 문제, 가사일 분담, 남편 혹은 부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 중요한 일의 결정,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 여가활동(혹은 취미), 습관, 관심사(혹은 대화의 주제), 종교문제, 자녀양육(교육방식, 장래계획), 배우자쪽 친척과의 관계, 자신쪽 친척과의 관계, 가치관/인생관이다.

## (2) 부부관계 유형

부부관계 유형은 부부관계의 주관적 만족도와 결혼의 불안정성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 유형화를 하였다.

### ① 주관적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의 개념화 문제는 학자에 따라 만족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일치하는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니나, 결혼만족도를 연구하는 데 지배적인 견해는 '만족'이란 일정한 목표나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상태라고 보고 '결혼만족' 역시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부부의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 또는 일종의 태도라고 보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 견해에서 일반적으로 결혼만족도란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부부의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이며 일종의 태도(Hawkins, 1968)로 정의된다. 이 입장에서는 만족을 만족 대 불만족으로 양립되는 것으로만 보지 않고, 즐거움 대 즐겁지 않음, 행복 대 불행, 충족 대 불만과 같은 감정을 매우 만족에서부터 매우 불만족으로 이르는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이라고 보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Burr & Constantine, 1979). 이 경우 결혼만족이란 배우자가 자신의 결혼관계에 대해 느끼는 만족한 감정의 정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개념으로써 결혼관계에서 두 사람은 의미있게 다른 수준의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된다(Hawkins, 1968). 다시 말해 결혼만족이란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동적인 상태에 있는 가변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 연구에서도 현재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정도를 4단위 척도를 질문하여 주

관적인 만족정도를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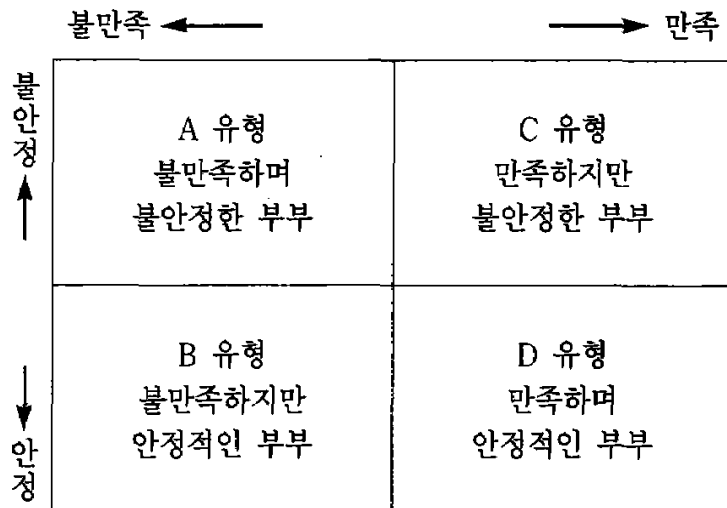
② 결혼의 잠재적 불안정성

부부관계의 안정성(*stability*)이란 결혼생활의 지속성에 대한 개념으로 안정된 부부 관계란 배우자의 자연적인 죽음으로 인해서만 해체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Spanier & Lewis, 1979). 그러므로, 불안정성(*instability*)이란 부부 상호간의 심리상태가 이혼 상태인 위기경향적 특성이라 정의될 수 있다. 이 조사에서는 별거나 이혼을 생각해 본 정도에 따라 잠재적인 불안정성을 측정하였다. 즉, “최근 몇년 동안에 배우자와 별거 혹은 이혼했으면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4단위 척도의 응답 범주를 사용하였다.

③ 부부관계 유형

이 연구에서 이용되는 부부관계 유형은 Spanier와 Lewis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틀을 기초로 하여 위의 결혼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와 결혼의 잠재적 불안정성의 두가지 변인을 조합하여 부부관계 유형을 규정하였다. <그림 2>는 이 연구에서 나는 4가지 부부관계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부부관계 유형



#### 4)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 (1) 우리나라 부부들이 가장 많이 겪는 갈등의 영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2) 우리나라 부부들은 어떠한 부부관계 유형의 분포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특성은 어떠한 것들인가?
- (3) 부부갈등은 부부관계의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4.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표 1>과 같다.

조사 대상자는 전국의 대도시,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을 인구비례에 맞게 층화표집하여 전체 1,217명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먼저 성별로는 남성이 46.8%, 여성이 53.2%로 여성이 약간 많았다. 연령은 20대가 10.8%, 30대가 47.2%, 40대가 22.7%, 50대 이상이 19.3%였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가 24.3%, 고졸이 47.8%, 전문대졸이 7.9%, 대졸 이상이 20.0%였다. 직업은 사무직이 18.3%, 노동직이 15.0%, 전업 주부가 37.6%, 그리고 기타 농·임·어업과 자영업 등이 29.1%였다. 가계소득수준은 월평균으로 100만원 이하가 19.4%, 101~150만원이 25.4%, 151만원~200만원이 26.1%, 201만원~250만원이 9.0%, 그리고 251만원 이상이 29.1%여서 대체적인 월평균 수입은 약 200만원 정도가 되었다. 지역 크기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도시 지역이 46.7%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도시 30.5%, 읍·면 지역 22.8%의 지역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특성	구분	N (%)
성	남자	570 (46.8)
	여자	647 (53.2)
연령	20대	132 (10.8)
	30대	574 (47.2)
	40대	276 (22.7)
	50대 이상	235 (19.3)
교육수준	중졸이하	296 (24.3)
	고졸	582 (47.8)
	전문대졸	96 (7.9)
	대졸이상	243 (20.0)
직업	화이트 칼라	223 (18.3)
	블루 칼라	183 (15.0)
	전업주부	457 (37.6)
	기타	354 (29.1)
월평균 가계소득	100만원이하	236 (19.4)
	101~150만원	309 (25.4)
	151~200만원	318 (26.1)
	201~250만원	109 (9.0)
	251만원이상	245 (20.1)
지역별	서울	272 (22.4)
	인천·경기	275 (22.6)
	강원	37 (3.0)
	대전·충청	119 (9.8)
	광주·전라	152 (12.5)
	대구·경북	140 (11.5)
	부산·경남	222 (18.2)
지역 크기별	대도시	568 (46.7)
	중소도시	371 (30.5)
	읍·면 지역	278 (22.8)
계		1,217 (100.0)

2) 부부갈등 영역

부부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영역들 중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갈등이 있는 상태를 살펴본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갈등을 우리나라 부부들이 가지고 있다고 과반수 이상 응답한 영역들로는 습관의 차이, 가사일 분담, 여가 활동에서의 의견의 불일치 등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의 부부갈등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들과 비교적 일치하는데, 습관의 차이는 변화순의 연구(1994)에서도 가장 높은 갈등영역으로 나타났으며, 가사일 분담의 문제는 우리나라 부부들에게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갈등의 주제이다. 이와 함께 여가시간 사용이나 대화주제의 차이 그리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의 양 등은 부부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또한 외부

<표 2> 부부갈등영역(순위별)

단위 : %

순위	갈등영역	갈등의 불일치도 (%)			
		전체	남	여	t 값
1	습관의 차이	60.5	55.4	65.0	19.198***
2	가사일 분담(설거지, 빨래, 청소 등)	56.6	54.2	58.8	5.949
3	여가활동(혹은 취미)	53.1	56.9	53.3	15.522***
4	관심사(대화의 주제)	39.0	46.5	41.4	9.949*
5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	37.6	36.9	38.2	10.702*
6	남편 또는 부인으로서의 역할기대	32.7	29.9	35.2	7.114
7	금전관리, 재정문제	26.5	26.7	26.1	0.164
7	종교문제	26.5	27.4	25.6	1.872
9	가치관/인생관	26.4	24.1	28.5	12.515**
10	배우자쪽 친척과의 문제	23.9	22.3	25.3	3.717
11	성생활	23.4	21.3	25.3	3.809
12	자신쪽 친척과의 문제	22.1	21.8	22.4	0.742
13	사랑(애정)의 문제	21.9	19.9	23.7	6.244
14	자녀양육	20.7	17.1	22.1	5.478
15	중요한 일의 결정	18.4	17.6	19.1	2.376
16	부부의 장래계획(직업, 진로문제)	16.8	15.8	17.6	4.905
평균		39.293	38.540	39.958	1.566

주 : 1) 단, \*\*\* p<.001, \*\* p<.01, \* p<.05

2) 평균점수는 갈등점수를 0부터 100까지로 환산한 점수로 갈등의 전체 총점을 나타냄

적 요인이 아니라 부부간에 생활을 하고 서로 시간을 보내는 데 연관된 요인들로서 습관의 차이, 여가활동에 대한 차이 그리고 의사소통과 관련된 영역인 관심사(대화주제)의 차이,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 등이 갈등의 중요 요인인 것과 함께, 서로간의 역할 기대의 차이가 또한 상위요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일치하게 결과를 나타냈다 (Spanier, 1976; 최규련, 1994; 김갑숙 외, 1992; 동환숙 외, 1997). 그러나 그동안 중요한 문제로 나타났던 자녀양육의 문제는 갈등요인으로는 하위순위를 차지하였고, 중요한 일의 결정, 부부의 장래계획 등이 별로 갈등을 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의 특징을 보면 정서적인 측면의 것보다는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 갈등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가활동은 오늘날 가족에서 중시되고 있는 영역으로 이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결혼생활의 불만이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이다.

부부갈등영역에 대해 남녀의 차이에 대한 결과로는 보편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갈등이 많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남성의 경우에는 여가 또는 취미활동의 차이를 가장 높게(56.9%) 인식하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습관의 차이(65.0%), 가사일 분담(58.8%) 순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부부 중 한쪽에서는 갈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는 영역은 습관의 차이( $p < .001$ ), 여가활동( $p < .001$ ), 가치관 또는 인생관( $p < .01$ ),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 $p < .05$ ), 관심사( $p < .05$ ) 등이다.

한편, 부부의 갈등영역은 연령과는 통계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으며,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졸 이상이 가장 갈등이 적었다( $p < .001$ ). Duncan test를 이용한 사후검증결과 전문대졸, 고졸, 중졸 이하의 세 집단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이들과 대졸 이상만이 차이를 보였다.

### 3) 부부관계의 유형 : 만족도와 불안정성의 조합

#### (1) 주관적 결혼 만족도

결혼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는 <표 3>과 같은데, 이는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 ). 남자는 결혼생활에 불만족하다는 대답이

〈표 3〉 부부관계 유형에 따른 갈등정도

교육 정도		갈등점수 평균 (sd)	F 값
대졸 이상	241 (20.0)	35.719 (15.796)	5.521**
전문대졸	94 (7.9)	38.985 (16.488)	
고 졸	577 (47.8)	40.540 (16.135)	
중졸 이하	290 (24.3)	39.885 (14.802)	
N=1,202 (100.0)		39.293 (15.796)	

주 : \*\* p<.001

전체의 20.2%인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30.1%였다. 즉, 전체적으로 남편쪽보다는 아내쪽에서 결혼생활에 대하여 불만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2) 부부관계의 불안정성

부부관계의 불안정성은 이혼에 대한 생각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5%의 부부가 불안정이 큰 부부이고, 85.5%는 안정적인 부부였다. 부부관계의 불안정성 인식에서도 남녀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 남성의 경우에 11.4%가 결혼의 불안정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17.3%가 현재의 결혼생활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만족도의 측면과 같이 불안정성에서도 여성들이 더 불안정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주관적 결혼만족도

만족도	성별	남자 (n=570)		여자 (n=647)		전 체
① 매우 불만		1.8	20.2	3.8	30.1	25.4
② 다소 불만		18.4		26.3		
③ 다소 만족		57.9	79.8	57.0	69.9	74.6
④ 매우 만족		21.9		13.9		
계 (평균)		$\chi^2=26.582^{***}$				

주 : \*\*\* p<.000

(3) 부부관계 유형 : 만족도와 불안정성의 조합

이 연구에서는 결혼생활의 주관적 만족도와 부부관계의 불안정성의 두 변인에 기초하여 부부관계 유형을 4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 부부관계에서 네가지 유형의 전체 분포도를 살펴본다면, 먼저 A유형은 전체의 8.3%, B유형은 17.1%, C유형은 6.2%, 그리고 D유형은 68.4%를 나타내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결혼생활도 불만족스럽고, 부부관계도 불안정성을 나타내서 곧 해체의 위험성이 있는 집단이 전체의 8.3%가 되었으나, 대체적으로 약 70%의 부부들이 안정적이며 만족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나 결혼생활이 불만족스러우나 부부관계는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부부가 17.1%나 되어서 외부적 압력이나 다른 조건들에 의하여 형식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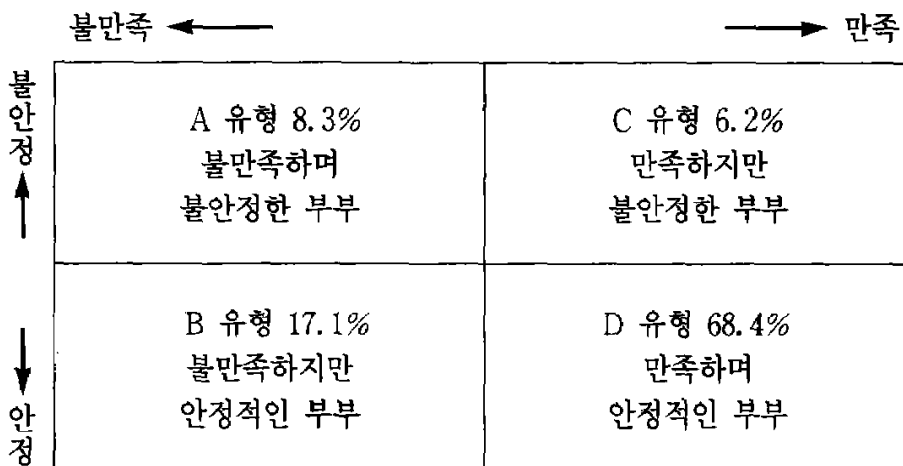
〈표 5〉 부부관계의 불안정성 정도

단위 : %

불안정성	성별		전체	
	남자(n=570)	여자(n=647)	전체	
① 매우 심각하게 생각	3.5	4.6	17.3	14.5
② 어느 정도 심각하게 생각	7.9	12.7		
③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음	36.3	46.1	82.7	85.5
④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음	52.3	36.6		
계 (평균)	$\chi^2=31.387^{***}$			

주 : \*\*\* p<.000

〈그림 3〉 우리나라 부부관계 유형의 결과





는 유형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부부관계는 만족스러우나 불안정성이 높은 예외적 부부는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 부부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10여년 전의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동원의 결과(1988)에서는 불만족하며 불안정하여, 해체위험을 지니고 있는 부부유형인 A유형이 36.2%에 이르는 것에 반하여 이 연구에서는 8.3%만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그다지 위험집단이 높은 상태라고 볼 수는 없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부부의 질은 낮으나 안정적인 집단인 B유형의 경우에는 9.8%에 불과하였는데, 이 조사 결과에 있어서는 17.1%나 상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이동원의 연구는 도시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연구는 전국적 표집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10년간의 가족생활 변화로 인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부부관계유형을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p < .000$ ). 여성들의 경우 만족하고 안정적인 가정은 62.4%인데 반해 남성의 경우에는 75.1%로 남성들이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스러운 안정적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훨씬 많았다. 다시 말해서 여성들이 결혼생활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특히 불만족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B유형의 경우에는 남녀가 6%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여성들이 불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하지만 결혼생활을 중단하고자 하는 생각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이혼이 부정적으로 여겨지던 우리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다.

연령별로 부부관계유형을 살펴본 결과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그 경

〈표 6〉성별에 따른 부부관계유형

단위 : N(%)

부부관계유형		남	여	전 체
A 유형	불만족/불안정	38 ( 6.7)	63 ( 9.7)	101 ( 8.3)
B 유형	불만족/안 정	77 (13.5)	131 (20.2)	208 (17.1)
C 유형	만 족 /불안정	27 ( 4.7)	49 ( 7.6)	76 ( 6.2)
D 유형	만 족 /안 정	428 (75.1)	404 (62.4)	832 (68.4)
		570 (100.0)	647 (100.0)	1,217 (100.0)
$\chi^2 = 22.486^{***}$				

주 : \*\*\*  $p < .000$

〈표 7〉 연령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

단위 : %				
연령별	20대 (n=132)	30대 (n=574)	40대 (n=276)	50대 이상 (n=235)
A 유형	6.8	10.5	6.2	6.4
B 유형	18.2	15.7	19.9	16.6
C 유형	7.6	7.3	5.8	3.4
D 유형	67.4	66.6	68.1	73.6
$\chi^2=14.014$				

향성은 다음과 같다. 대체적으로 안정적이며 만족도가 높은 부부유형(D유형)은 20대는 67.4%, 30대는 66.6%, 40대는 68.1%이며, 50대 이상은 73.6%에 달하였다. 한편 부부관계가 불만족스러우면서 불안정한 해체 가능성이 있는 부부유형인 A유형을 가장 많이 나타나는 연령대는 30대로서 전체의 10.5%가 포함되었고, 다른 연령 대에서는 6~7% 정도만이 A유형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 결과는 부부의 이혼 당시 평균연령이 97년도의 경우 39.3세, 35.7세인 것으로 볼 때에 30대의 부부간 불안정성과 가족해체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지지해 주고 있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불만족하지만 결혼의 안정성은 확보한 상태인 B유형은 40대(19.9%)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이혼연령에 유추하여 해석해 본다면 결혼의 안정성에 가장 위협을 주는 30대를 무사히 넘겨 해체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상태라기보다는 여전히 갈등이 남아있는 상태로 40대 기간을 보낸다고 볼 수 있겠다.

한가지 우려되는 상황은 2~30대에서 만족하지만 불안정한 부부가 많다는 점이다. 즉, 나이가 젊을수록 결혼관계가 해체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나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4) 부부갈등과 부부관계유형

##### (1) 부부갈등 정도와 부부관계유형

부부갈등과 부부관계유형과의 관계를 보면 〈표 8〉과 같다. 전체 갈등영역의 점수를 합산하여 갈등총점으로 표시해 보았는데, 평균은 39.293이었으며, 4집단간에 큰 차

〈표 8〉 부부관계 유형에 따른 갈등정도

부부관계유형		갈등점수 평균(sd)	F 값
A유형	불만족/불안정	57.104 (14.633)	109.606***
B유형	불만족/안정	47.198 (14.734)	
C유형	만족/불안정	44.856 (15.070)	
D유형	만족/안정	34.657 (13.644)	
전체 1,217(100.0%)		39.293 (15.796)	

주: \*\*\*  $p < .000$

이( $p < .000$ )를 보이고 있었다. 갈등의 점수는 만족하고 안정적인 D유형과 불만족스럽고 불안정적인 A유형과 비교해 볼 때에 23점 가량이나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대체적으로는 안정성보다는 부부관계의 주관적 만족도와 갈등점수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부관계유형의 네 집단이 갈등정도에 따른 유사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Duncan test를 실시한 결과 갈등에 따른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었다. D유형(만족/안정)이 갈등정도가 가장 낮았고, B유형(불만족/안정)과 C유형(만족/불안정)이 유사집단으로 구분되었다( $\alpha = .05$ ). 그러나 그 점수의 차이를 보면 대체적으로는 부부갈등은 불안정성보다는 부부관계의 만족 정도가 높은 집단이 갈등에서 더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A유형(불만족/불안정)은 가장 갈등이 높은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 (2) 부부관계유형과 부부갈등영역

부부관계유형에 따른 부부갈등영역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먼저 네가지 부부관계유형에 따라서 갈등의 16가지 영역 모두에서 집단간에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모두  $p < .000$ ). 즉, 부부갈등의 모든 영역들은 부부관계의 불안정성과 만족여부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갈등이 관리되지 않으면 부부관계의 불만족과 불안정성은 더욱 심각하게 될 것이다. 특징적인 것은 불만족이 높은 A유형(불만족/불안정)과 B유형(불만족/안정)에서는 남편 혹은 아내로서의 역할기대가 상이한 것이 5번째로 중요한 갈등영역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부부관계가 만족함을 나타내고 있는 C유형(만족/불안정), D유형(만족/안정) 두 유형에서는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의 차이를 중요한 갈등영역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부부관계 유형에 따라서 가장 큰 변이를 나타내 주는 영역을 '결합도'를 조사

해봄으로서 살펴보았는데, Cramer's V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영역이 유형화에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분석결과, 가장 결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갈등의 영역으로는 '사랑 및 애정의 문제'이며, 그 다음은 '가치관/인생관의 문제', 그리고 '남편 혹은 부인으로서의 역할기대' 등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A, B, C, D 유형이 나뉘어진 것에 따라 각 유형별로 점수의 차가 가장 많이 나는 영역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서 다른 어떤 문제들보다 사랑 및 애정의 문제와 가치관에 관한 문제들이 부부관계의 유형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부부간의 갈등이 가장 심한 영역은 습관의 차이, 가사일 분담, 여가 및 취미활동 등이지만 이들은 부부관계의 유형화와는 크게 관련이 없고 부

〈표 9〉 부부관계 유형에 따른 부부갈등 영역

단위 : %

순위별 갈등영역	전체	A유형	B유형	C유형	D유형	$\chi^2$	결합도 (Cramer's V)
1. 습관의 차이	60.5	75.2	76.0	73.7	53.7	51.759*	.206
2. 가사일분담	56.6	74.3	65.4	52.6	52.6	25.143*	.144
3. 여가(취미활동)	53.1	79.2	72.5	60.5	44.5	85.373*	.265
4. 관심사(대화주제)	39.0	71.3	61.1	50.0	28.4	135.771*	.334
5.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	37.6	69.3	53.4	47.4	28.9	95.346*	.280
6. 역할기대 (남편 혹은 부인으로)	32.7	71.3	54.6	43.4	21.5	164.464*	.368
7. 금전관리, 재정문제	26.5	66.3	37.0	42.1	17.5	137.979*	.337
8. 종교문제	26.5	40.6	33.7	31.6	22.5	23.599*	.139
9. 가치관/인생관	26.4	67.3	43.5	35.5	16.4	164.379*	.368
10. 배우자쪽 친척과의 관계	23.9	60.4	38.0	31.6	15.3	133.174*	.331
11. 성생활문제	23.4	56.0	40.1	30.3	14.7	128.492*	.325
12. 자신쪽 친척과의 관계	22.1	49.5	33.7	30.3	15.1	86.503*	.267
13. 사랑 및 애정문제	21.9	61.4	37.5	36.8	11.8	181.670*	.386
14. 자녀양육	20.7	52.5	32.9	28.9	13.1	112.836*	.305
15. 중요한 일의 결정	18.4	54.5	27.9	26.3	11.0	133.678*	.332
16. 장래계획	16.8	48.5	29.5	22.4	9.3	132.169*	.330

주 : A유형=불만/불안정, B유형=불만/안정, C유형=만족/불안정, D유형=만족/안정

\* p<.000

부관계의 유형을 결정짓는 것은 '사랑 및 애정의 문제', '가치관/인생관의 문제', '남편 혹은 부인으로서의 역할기대' 등이다. 따라서 부부갈등이 심한 영역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부부관계의 유형화와 관련된 영역을 더 시급하게 개입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 5. 논의 및 제언

이 연구는 우리나라 부부의 갈등영역과 부부관계유형에 따른 부부관계에서의 불안정성 정도와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국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연구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 부부들이 가장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영역으로는 습관의 차이, 가사일 분담, 여가 혹은 취미활동, 대화의 주제 및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 등 외부적 요인 보다는 비교적 부부간의 요인이 더 중요도를 차지하였다.

둘째, 부부관계의 유형을 부부간의 만족도와 불안정성을 두 축으로 하여 네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부부관계가 불만족스럽고 불안정한 유형(A)은 전체의 8.3%가, 그리고 부부관계의 만족도도 높고 안정성도 있는 유형(D)은 68.4%여서 전체적으로 볼 때 비교적 안정적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부관계가 만족도와 안정성에서 불일치를 보이는 집단인 불만족/안정의 유형(B)은 전체의 17.1%, 그리고 만족/불안정 유형(C)도 6.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의 안정성이 단지 해체의 결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며 극단적 현상으로 치닫지 않도록 개입해야 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이들 부부관계유형과 부부갈등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p < .000$ ). 또한 갈등영역 중 부부관계의 유형에 따라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영역이 애정 및 사랑의 문제와 가치관/인생관의 문제 및 역할기대 문제이다.

넷째, 부부간의 갈등정도와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사회가 아직도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가정환경을 이루고 있으므로 결혼생활의 질적인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더 많이 부정적 사고

를 하게 되는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연령별로는 30대의 결혼의 불안정성과 40대의 결혼생활이 불만족하지만 유지되고 있고, 20대와 30대는 만족하지만 불안정한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나타내는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 관리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실천현장에서 부부갈등을 위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 부부갈등이 많은 영역에서 발생되고 있고, 그럼으로써 부부관계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것으로 볼 때 이에 대한 관리나 개입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부갈등 관리는 습관, 가사일 분담, 여가활동, 관심사,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 등 갈등이 많은 영역과 부부관계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애정 및 사랑의 문제와 가치관/인생관의 문제 및 역할기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부관계의 불만족과 불안정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애정 및 사랑의 문제와 가치관/인생관의 문제 및 역할기대의 문제에 우선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부갈등 관리는 부부 모두에게 동시에 개입하는 필요하다.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도 남편들은 결혼생활에 대해 낙관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다. 그러나 부인들은 불만과 이혼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부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많다. 즉, 부인의 문제제기를 남편들이 무시하거나 별로 중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부부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은 부부관계의 해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남성들에게는 부부생활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갖고 배우자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그들의 문제의식을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부치료나 부부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만족하지만 불안정한 부부들과 불만족하지만 안정되게 살아가는 부부들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가족연구나 부부관계에 관한 연구는 상당부분 갈등의 요인이나 상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어떠한 요인들이 결혼관계를 안정시키거나 지속시키는지 혹은 만족한 부부들이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에서 부부생활을 지속하는지를 밝혀서 그에 대한 대책이나 개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정도는 조사하였으나 갈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부들이 어떠한 갈등관리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조사하지 못하였다. 가족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가족들은 나름대로의 갈등관리전략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전략들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우리나라 가족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갈등의 해결방식을 부부관계의 유형에 따라 좀더 역동적인 견지에서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이러한 갈등해결 방식에서 오는 역기능을 수정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개입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 참고 문헌

- 김갑숙·최외선. 1992. “아내가 인지한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 김명자. 1989. “도시부부의 결혼 안정성과 그 관련변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양희. 1993. 《한국 가족의 갈등연구》 중앙대학교 출판부.
- 김효숙. 1988. “도시부부의 역할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혜경. 1986. “결혼 초기 부부의 갈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동환숙·홍달아기. 1997. “소설 속에 나타난 부부관계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 2 권 제 2호.
- 변화순. 1994. “부부간의 갈등과 해소.” 《한국 가족의 부부관계》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사회문화연구소출판부.
- 윤양현. 1986. “현대 한국 부부관계의 갈등유형과 안정성에 관한 연구 : 30대 도시중산층 부부의 심층 면접을 토대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동원. 1988. “도시 부부의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동원·함인희. 1996. “한국 가족사회 연구 50년의 성과와 반성.” 《가족과 문화》 제 1 집 창간호.
- 이동원·최선희. 1998. “부부평등과 결혼만족과의 관계.” 《사회과학연구논집》 제 2 집. 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소.
- 이미영·박혜인. 1995. “전화상담사례에 나타난 부부갈등 문제와 대응행동.” 《대한가정학회

- 지》 33(1).
- 이영숙. 1999. 《가족문제론》 학지사.
- 전춘애 · 박성연. 1993.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간의 관계에 관한 일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2).
- 조홍식 외. 1998. 《가족복지학》 학지사.
- 최규련. 1994. “가족체계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 최동숙. 1989. “부부간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디스트레스 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 허윤정. 1996. “부부관계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 의사소통과 갈등해결방식.” 석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Burr, W. R. et al. 1979. “Symbolic Interaction and the Family.” in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II, NY: The Free Press.
- Cuber, J. F. & P. B. Harrof, 1980. “Five Types of Marriage.” in *Family in Transition*. edited by Shocknick & Shocknick. Boston: Little, Brown and Co.
- Cummings, E. M. & P. Davies, 1994. *Children and Marital Conflict*. NY: The Guilford Press.
- Everett, C. A. 1991. *Marital Instability and Divorce Outcomes : Issues for therapists and educators*, NY, London: The Haworth Press.
- Hawkins, J. L. 1968. “Association between Companionship : Hosti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MP*. 30. pp. 647~650.
- Lewis, R. A. & G. B. Spanier, 1979. “Theorizing about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ch.12. NY: The Free Press
- Spanier, G. B.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 pp. 15~28.
- Sprey, J. 1979. “Conflict theory and the study on marriage and the family.” in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II, NY: The Free Press.
- Steinberg, L. & S. B. Silverberg, 1987, “Influences on Marital Satisfaction during Middle Stages of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nov.), pp. 751~760.



## A Study on the Instability of Marital Relationship in Korea Marital Conflict and the Type of Marital Relationships

Choi, Seon-Hee & Jun, Myung-Hee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is about the nationwide research concerning the degree and trends of marital conflict and instability. The research samples are 1,217 married. As the result of the research, the most conflictable issues in Korean couples are on the husband-wife relations, such as habitual differences, sharing in houseworks, conflicts in the role expectation, and the communication problems. In this study, We devide the marital relationships into 4 types(A, B, C, and D) in the view of the satisfaction & instability of marriage. First, the marriage with unsatisfaction and instability(A) was portioned 8.3%, and the satisfactory & stable type(D) was portioned 68.4%. It seems the marital relationships in Korea are relatively stable. However, the portion of type B - unsatisfactory, but stable couples — is 17.1% and the type C — satisfactory, but unstable marriage 6.2%. The result implies that the indication of marital instability should consider not only the divorce rate, but also the quality of marital relationships. In other words, the intervention for the conflict couples yet not divorce is needed. The differences of conflict areas among the relational types is not so much, but the degrees on conflicts are very serious. Especially, in the areas of marital conflict, love issues and personal value system affect the division of relational types of marriage most. It means the interaction factors are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about maintaining the marital relations with stable and satisfaction.